



호주의 고용보조지표 : 종류 및 그 특징

채민희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호주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부문 경제학자들 간에 고용시장 동향 해석에 관하여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¹⁾ 정부에서는 호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실업률이 하향세이고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반적으로 고용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 연구소 경제학자들은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수치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고용성장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호주에서는 고용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외에도 다양한 통계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 보도자료에는 실업률과 더불어 불안전고용률(underemployment rate) 수치가 매번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계청은 빈 일자리 수(job vacancies) 지표를 분기별로 발표하는 데 단순히 한 개의 수치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 일자리 수가 얼마나 변동했는지 구분해서 보도한다. 민간부문 데이터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주로 이용되는 데이터는 구인광고 웹사이트에서 추출한 구인광고 건수 및 연봉 수준 데이터로, 민간 연구소와 통계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조사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부적인 고용 동향을 파악한다.

1)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브리프 2019년 8월 「세계노동소식」의 호주 소식 참조.

이 글에서는 이처럼 호주 정부 및 민간 연구소에서 노동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률과 더불어 적극 활용하는 고용보조지표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산출방식이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호주 통계청의 불안전고용률(underemployment rate)

호주 통계청은 매월 노동시장 관련 통계수치를 간략하게 발표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총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불안전고용률, 노동시장 참여율, 그리고 총 근로시간 통계 수치가 포함된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실업률과 더불어 불안전고용률을 매월 주요 수치로 보도한다는 점이다.

<표 1> 2019년 7월 호주 통계청 고용동향 요약

	2019.6	2019.7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천 명)	12,890.6	12,915.2	24.6%	2.7%
실업자 수(천 명)	709.0	715.6	6.6%	1.6%
실업률(%)	5.2	5.3	0.0pts	0.0pts
불안전고용률(underemployment rate)(%)	8.4	8.4	0.0pts	0.0pts
노동시장 참여율(participation rate)(%)	66.0	66.1	0.1pts	0.6pts
총 근로시간(monthly hours worked in all jobs)(백만 시간)	1776.0	1776.6	0.6%	1.8%

자료 : 6020.0 - Labour Force, Australia Jul 2019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Product%20ReleaseDate/6050C537617B613BCA25836800102753?OpenDocument>)

여기서 불안전고용이란 간단히 말해서 현재 취업이 된 상태이더라도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호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불안전고용의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를 따른다. 예를 들어 풀타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현재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있다면, 고용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상태

로 보는 것이다.²⁾

불완전고용은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다. 첫째는 사람 수(headcount) 기준이다. 이는 총 취업자 중 불완전고용상태라고 판단되는 취업자 수의 비율이다. 둘째는 시간 기준이다. 노동시장 내 총 잠재노동시간³⁾ 중 불완전고용상태의 취업자가 추가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시간의 비율이다. 호주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불완전고용률은 사람 기준으로 환산된 수치이다. 즉 호주 내 총 취업자 중에서 불완전고용으로 분류되는 취업자의 비율로, 산출을 위해서는 월별 설문조사인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를 활용한다.

불완전고용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노동력조사 데이터 내에 취업자들을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완전고용 근로자 그룹이다. 여기에는 ① 조사 당시 풀타임 근로자, ② 조사 당시 병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나 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 ③ 현재 근로시간 이상 일할 의사가 없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둘째는 불완전고용 근로자 그룹으로, ① 파트타임 근로자 중 현재보다 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② 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담당 업무량이 충분치 않아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더 일할 의사가 있더라도 조사 당시나 조사 시점 이후 4주 내에 실제로 그만큼 더 일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완전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호주 통계청에서 말하는 불완전고용률이란 현재 고용은 되었지만 더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근로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율이다.

이와 더불어 호주 통계청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불완전고용지표를 분기별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 참여, 구직 및 이동(Participation, Job Search and Mobility: PJSM)’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근로자들의 불완전고용상태를 더욱 상세히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number of hours usually worked), 선호하는 근로시간(number of preferred hours), 일자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steps taken to find work), 구직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difficulties finding work) 등을 설문한다.

2)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6102.0.55.001~Feb%202018~Main%20Features~Underutilised%20Labour~7>

3) 노동시장 내 총 노동시간 수요를 일컫는 용어로, 실업자와 불완전고용 취업자가 추가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동시간에 현재 모든 취업자들이 일하는 총 노동시간을 합산한 값이다.

■ 호주 통계청의 빈 일자리 수 지표(job vacancies)⁴⁾

호주 통계청은 분기별로 노동시장 수요를 나타내는 '빈 일자리 수' 지표를 발표한다. 이 지표는 호주 내 일자리 수 증감 추세를 통해 고용성장 패턴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지표 산출에는 통계청의 '빈 일자리 수 설문조사(Job Vacancies Survey)' 데이터를 이용한다. 먼저 여기서 빈 일자리 수란 특정 기간 내에 존재하는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설문조사 기준 시점 당일에 존재하는 빈 일자리 수만을 집계한다. 조사 기준일에 해당 회사가 실제로 인력 뽑기 위해 구인광고를 내고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실질적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빈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해당 기준일에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빈 일자리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당 구인광고를 올려 고용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3개월 뒤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일자리는 빈 일자리로 집계되지 않는다.⁵⁾ 또한 고용계약 기간이 하루 이하인 경우는 빈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산출된 빈 일자리 수 지표는 분기별 통계청 보도자료를 통해 <표 2>와 같이 발표된다. 한 가지 특징은 빈 일자리 통계치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보고한다는 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대부분 정부의 노동수요를 반영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민간 기업들의 노동수요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표 2> 2019년 5월 호주 빈 일자리 수 지표

(단위 : 천 개, %)

	2019. 5	전분기 대비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민간부문	221.2	0.1	3.8
공공부문	21.9	1.6	8.2
민간 및 공공부문	243.2	0.3	4.2

자료 : 6354.0 - Job Vacancies, Australia, May 2019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6102.0.55.001~Feb%202018~Main%20Features~Job%20Vacancies~10>)

4)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0/542E47978ED4A955CA2572AC0018067C?OpenDocument>

5)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6102.0.55.001~Feb%202018~Main%20Features~Job%20Vacancies~10>

■ 호주 고용부의 인터넷 빈 일자리 지표(Internet Vacancy Index: IVI)⁶⁾

호주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는 매월 주요 구인광고 웹사이트 - SEEK, CareerOne, Australian JobSearch - 에 새로 등록된 구인광고 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빈 일자리 지표(이하 IVI)’를 발표한다. IVI는 지난 한 달간 주요 구인광고 사이트에 새로 등록된 구인광고 개수가 늘었는지 감소했는지를 통해 노동시장 내 수요 변동 현황을 보여준다. 또한 직종 또는 지역별 IVI도 추가적으로 발표한다. 고숙련 IVI(Skilled IVI)는 전문직, 기술직 및 무역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광고 수만을 중점적으로 집계하고 지역별 IVI(Regional IVI)는 구인광고 수 변동 현황을 지역별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상세직업군별 IVI(Detailed Occupational IVI)는 지난 1년간 구인광고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5개 직업군과 가장 크게 하락한 5개 직업군을 보여준다. <표 3>은 그 예시로, 2019년 7월 기준 지난 1년간 교육전문가 직종 구인광고 수가 전년동월대비 79.2%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⁷⁾

<표 3> 상세직업군별 IVI 예시

2019년 7월 기준(전년동기대비) 빈일자리 수 최대 증가 그룹	증감수	증감률
교육전문가(education professionals)*	1,170	79.2
건강 진단 및 치료 전문가(health diagnostic and therapy professionals)	720	19.4
교육/건강도우미 및 보조사(carers and aides)	640	10.1
의사 및 간호사(medical practitioners and nurses)	600	10.3
보건복지상담사(health and welfare support workers)	220	18.1
2019년 7월 기준(전년동기대비) 빈일자리 수 최대 감소 그룹		
건설 매니저(construc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anagers)	-800	-13.8
운전 및 운송기사(drivers and storepersons)	-820	-19
고객응대상담원(general-inquiry clerks, call centre workers, and receptionists)	-960	-7
일반 판매직(sales assistants and salespersons)	-1,070	-12.6
기업 관리직(corporate managers)	-1,080	-10.8

주 : * 각 직업군의 명칭은 호주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직업군 정의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의역하였음.
예를 들어 Carers and Aides는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8202D8D47B816971CA2575DF002DA5B0?opendocument>를 참고하였음.

6) <http://lmip.gov.au/default.aspx?LMIP/GainInsights/VacancyReport>

7) 직업분류는 호주 뉴질랜드 직업군 분류(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ZSCO)를 따른다.

통계청의 빈 일자리 수 지표와 비교했을 때 이 지표의 큰 장점은 대표성이다. 통계청 지표는 설문조사 대상 기업들의 자료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랜덤추출된 표본이라 하더라도 대표성에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 ANZ 구인광고 지표(ANZ Job Advertisement Series)⁸⁾

국가 기관 외에도 여러 민간 연구기관에서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ANZ 구인광고 지표이다. ANZ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산출하는데, 첫째는 주요 수도권 지역 신문에 등록된 구인광고 수이고, 둘째는 주요 구인광고 웹사이트에 등록된 구인광고 수이다. 지표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는 여타 자료와 마찬가지로 먼저 총 구인광고 수, 전월 및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 제시된다. 이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추세와 ANZ의 구인광고 지표를 비교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고용성장 추세와도 비교를 한다. 고용부의 빈 일자리 지표와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떨어진다. 특히 같은 일자리가 다른 신문이나 웹사이트에 여러 번 공지가 되는 경우 여러 개의 일자리로 집계된다. 즉 과대집계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대두된 가장 심각한 한계는 이 지표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형 구인 및 구직 행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⁹⁾ 실제로 ANZ 지표와 통계청 빈 일자리 수 지표를 비교했을 때, 최근 수년 간 ANZ 지표상 일자리 수가 통계청의 그것보다 적다. 구인광고가 신문이나 주요 웹사이트가 아닌 SNS와 같이 다른 방식을 통해 게재되는 경우 ANZ 지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8) <https://media.anz.com/posts/2019/08/anz-job-ads--heading-in-the-right-direction>

9) <https://www.sharecafe.com.au/2019/04/10/anz-economists-question-their-own-job-ads-data/>

■ SEEK 신규 구인광고 지표(SEEK New Job Ads Index)¹⁰⁾

SEEK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주요 구인광고 웹사이트 중 하나로 호주 고용부나 ANZ와 마찬가지로 SEEK 웹사이트에 게재된 구인광고 개수를 집계하여 신규구인광고 지표를 발표한다. 고용부와 ANZ는 SEEK 외에도 다른 구인광고 웹사이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SEEK 신규 구인광고 지표 자체는 큰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지수를 발표하는 월간 SEEK 고용보고서(SEEK Employment Report)를 보면 이 외에도 구인광고 내 평균 급여수준 등 상당히 유용한 고용보조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다. <표 4>는 2019년 5월 기준 해당 보고서에서 발표한 지역별 구인광고 내 평균 연봉 수준이다. 표에 따르면 2019년 5월 SEEK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에서 제시된 평균 연봉 수준은 전년 5월 대비 3.4% 증가했다.

<표 4> SEEK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한 구인광고 내 평균 연봉(2019년 5월 기준)(계절조정)

주 (State) 명	ACT	NSW	NT	SA	TAS	VIC	WA	QLD	호주 전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0.30	3.10	2.70	2.90	5.80	3.50	4.30	3.80	3.40
평균연봉액(호주달러)	89,250	89,870	87,232	82,309	78,324	87,751	91,070	85,464	88,260

자료 : <https://www.seek.com.au/about/news/jobs-ads-down-65-year-on-year-and-salaries-grow-by-34>

■ 맺음말

실업률과 고용률은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고용지표들이다. 정부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국제 정의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국제 비교가 수월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고용형태 또한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두 지표만으로 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렵

10) <https://www.seek.com.au/about/news/jobs-ads-down-65-year-on-year-and-salaries-grow-by-34>

다. 앞서 살펴본 호주의 고용보조지표들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불완전고용률 지표는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고용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된 빈 일자리 수 지표는 현 고용성장이 정부정책 영향인지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인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주요 온라인 구인광고 사이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용보조지표들을 산출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KLI**